

02

남북 관계와 비리봄의 정치 '시선의 정치'와 정당성 경쟁

▣ 정영철 ▣

Contents

1. 들어가며
2. '강요된 시선'에 갇힌 남북한
3. 천당과 지옥
4. 엇갈린 시선
5. 나가며: 남북 관계의 변화와 시선의 변천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자가 상대방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방식'은 상대방을 '악'으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었다. 또한, '보는 방식'은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위로부터의 '강제된 시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시선의 정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시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담론'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냉전시기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 이데올로기는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시선의 교차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의 시선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시선 역시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상대방 주민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시선 위에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겹쳐졌다. 오늘날 남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돕기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놓여 있다.

남북한의 '시선의 정치학'에는 다른 한편, 남북한의 민족과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 경쟁이 놓여 있다. 남북한은 자신들의 시선에 민족적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담았다. 위와 같은 남북한의 시선의 경쟁은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바라봄, 시선의 정치, 강제된 시선, 사회적 담론, 반공주의, 반제국주의

1. 들어가며

작가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과 공화국 북반부는 천당이고 남반부는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¹⁾

우리 자유대만이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공장을 세우면서 평화롭고 복된 생활의 터전을 가꾸고 있을 때, 북한 공산집단은 불행하게도 총을 만들고 박격포를 만들면서 북한 천지를 살벌한 병영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으며, ...김일성 괴수는 피비린내나는 숙청을 거듭하여 그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극렬한 공산 독재 체제를 굳혀 북한 땅을 자유와 희망이 없는 암흑과 공포의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²⁾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대방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옥인 것만큼 자신은 천당이요 정의였다. 앞의 두 글은 김일

1) 김일성,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문학예술부문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56. 12. 25)」,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57-458.

2) 박정희,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1972. 1. 1)」,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http://www.pa.go.kr) 12월 1일 검색).

성과 박정희가 상대방을 규정한 발언의 일부이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유를 통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은 곧 이미지를 통한 자기 정당성의 추구하고 연결된다.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나를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였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요된 시선'을 만들어왔다.

일반적으로 시선은 권력이자 동시에 헤게모니의 응집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선은 세계관의 계기이자, 현실인식의 통로이며, 가치판단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³⁾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강요된 시선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도록 해 왔다. 그러나 상대방을 바라보지만, 그 대상은 곧 울타리 내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통치'의 문제였다. 즉,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강요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선'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했다. 이는 시선이 곧 사회역사적인 것이자, 동시에 지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⁴⁾ 이를 주은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당연시된 '보는 방식'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듯이, 보는 방식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를 구성한다."⁵⁾ 이를 남북한의 경우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남북한 모두 특정한 '보는 방식'을 만들어왔고,

3) 김희봉, 「시선의 미학: 시선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철학연구』, 제89집(2010), p. 40.

4) 서곡숙, 「북한영화에서 드러나는 인문들의 시선, 감시, 권력: 〈우리 누이집 문제〉, 〈우리 처갓집 문제〉, 〈우리 삼촌집 문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8권 3호(2007), p. 135.

5)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서울: 한나래, 2003), p. 21.

이를 통해 자신들을 구성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는 방식'과 '보여지는 방식'에 따른 남북한관계는 '시선의 정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남북한의 분단 이후의 역사적인 '시선의 정치'를 추적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보는 방식'을 넘어서 오히려 내부의 통치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남북 관계의 모습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2. '강요된 시선'에 갇힌 남북한

1) 분단의 시선과 이중성

남북한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에 기반하여 언제든지 특정한 '내부자'를 끌어들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타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곧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닌 '틀린' 존재로 부각시키고,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듯 상대방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타자'화의 과정이었다. 때로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때로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곧 끊임없는 감시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끊임없는 '기억의 재생산'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였다. 즉, '현존하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인 안보 국가 만들기를 서두르게' 만든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

다.⁶⁾ 결국 분단과 전쟁의 경험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미지’의 정치와 상대방에 대한 ‘강요된 시선’을 만들어낸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이자 동시에 각각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체제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시선은 ‘바라봄’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통한 지배의 정당화이자 사회역사적인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정당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담론이 ‘생산—유통—소비’ 됴으로써 사회적인 구조로 고착화되게 된다. 남북한은 분단과 동시에 이러한 구조적 질서를 만들어왔으며, 이런 점에서 상호 동형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남북한이 서로를 인식하는 질서로서의 담론과 이미지, 그리고 바라봄의 구조는 천당과 지옥, 해방과 구원, 발전과 경쟁이라는 여러 가지 중첩된 담론들 위에 얹어진 것이었다.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 퍼부었던 ‘괴뢰’, ‘역도’, ‘반동’의 수사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의 표현이었다면, 정치적 담론으로 제시된 것은 ‘천당’, ‘발전’, ‘해방’의 구호였다. 이는 곧 자신감, 체제 우월성,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의 역사적 책무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민족 정통성과 체제 정당성의 표현이었다.⁷⁾ 따라서 이러한 시선의 부딪힘, 그리고 담론의 충돌은 결국 ‘민족’과 ‘체제’의 문제로 수렴되며, 이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곧 분단의 역사였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시선의 정치’에 일정한 변화가 찾아왔지만, 분단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언제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6) Ron, Theodore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 9.

7) 남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경쟁은 서로의 상징의 비교를 통해 잘 드러난다. 상징 대립은 곧 체제 정당성의 응축된 대립을 표현했고, 여기에는 ‘민족’과 ‘체제’의 정당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남북한 대립상징의 체계에 대해서는 정영철, 「남북한 대립상징의 구조와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1호(2007).

다만, 이러한 ‘시선의 정치’는 그 대상이 남북한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남북한의 상층부라는 점에서 ‘지배-피지배’의 이중적 분리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김일성 및 김정일 그리고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의 북한에 대한 규정은 그 상층부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해방, 노예 상태에 처해있는 상대방 주민들에 대한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⁸⁾ 이런 점에서 분단의 시선은 곧 ‘분리된 시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후일 상대방 주민들에 대한 ‘동정의 시선’으로 표현된다. 1960년대까지 앞선 경제력에 기반하여 북한이 남한 주민들에 대해 ‘동정’과 ‘시혜’의 태도를 보였다면, 1990년대 이후는 남한이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 ‘동정’과 ‘시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남북한은 상층부에 대해서는 ‘적대감과 소멸의 대상’으로서의 태도를 취했다면,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해방의 대상’으로서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역사’가 있었기에, 1990년대 이후 남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북한돕기운동’이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에 기반하여 대중적으로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⁹⁾

아무튼 남북한 ‘시선의 충돌’은 상대방에 대한 타자화가 궁극적으로는 내부 정치의 강력한 통제기제가 되면서, ‘바라봄’을 넘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강요된 시선’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강요된 시선’의 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도록 강제되었고, 이는 사회화와 재사회화를 거치면서 어느덧 ‘진실의 시선’으로 고정되었

8) 이런 점에서 남북한 모두 ‘해방의 시선’을 한편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상대방에 대한 ‘용정의 시선’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물론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갑우, 「북한 인식의 정치적 회로: 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정치비평』 2003년 하반기호.

다.¹⁰⁾ 분단 60년의 시간은 이러한 '고정된 틀'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고,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관계가 한편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치·군사적 분단을 뒷받침하는 '담론과 시선'의 분단 관계가 존재한다.

2) 남북한 시선의 교차와 담론의 생산

시선은 관계의 속성을 갖는다. 즉, 순수한 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과 믿음에 의해 매개되며,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¹¹⁾이 바로 시선이다. 따라서 시선은 항상 권력과 헤게모니와 관련된다. 벤담의 관용티콘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푸코는 시각이 가지는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본성, 그리고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¹²⁾ 문제는 누가 '보는 자'이고, 누가 '보여지는 자'인가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적 시선은 '한 사람이 만인을 보는 것'으로 변화하였고,¹³⁾ 이는 곧 감시와 처벌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즉, 바라보는 자가 시선이라면, 이는 곧 권력인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고, 또한 각자는 모두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권력의 행사이자 곧 권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에서 바라보는 권력은 직접적으로 각자의 주민들을 또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강요된 시선' 속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

10)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가장 강력한 규율장치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위로부터의 '시선'에 대한 수용만을 강제하였다. 이로부터의 일탈은 곧 처벌을 의미하였다.

11) 김희봉(2010), p. 61.

12) 서곡숙(2007), p. 132.

13)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서울: 기과량, 2008), p. 8.

으로 규정된 대상에 대한 정보의 독점— '적'에 대한 정보는 결코 '나'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¹⁴⁾—을 통해 지배자의 시선을 주민들에게 강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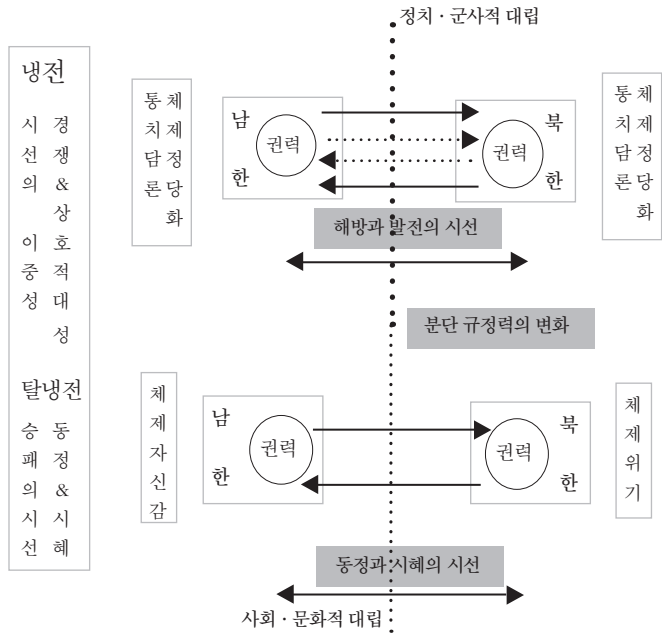
시선은 하나의 '시각양식'을 만들어낸다. 즉,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개인들의 시각을 규정하는 사회적인 '보는 방식'을 만들어내게 된다.¹⁵⁾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시각양식'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보는 방식' 역시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며, 이 안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통해 시각의 지배와 종속, 권력의 미시적인 작동 방식을 '바라봄'을 통해 밝혀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시선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이미지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지식이 작동한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러한 미시적 권력의 작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특정한 보는 방식을 강요하며, 이를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올바른 것으로 규정하는 지식이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를 지배해왔던 '반공주의'와 '반미주의' 혹은 '혁명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선의 정치학은 권력자와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을 분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자의 시선이 한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포괄적이다. 이러한 포괄성과 이중성이 남북한 시선의 공통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틀을 남북 관계의 역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이 가능할 것이다.

14) Eva Horn, "Knowing the Enemy: The Esistemology of Secret Intelligence," *Grey Room* Vol. 70, No. 11 (2003), pp. 61-67.

15) 주은우(2003), p. 23.

〈그림 1〉 남북한 관계와 시선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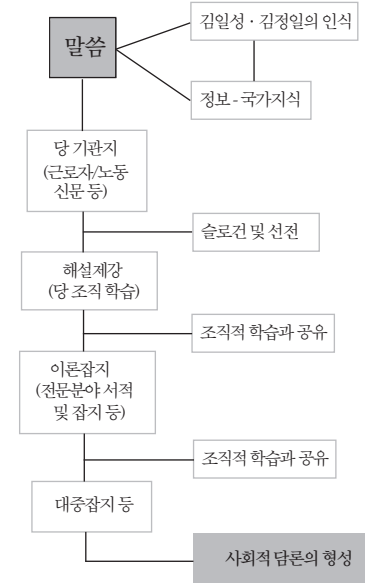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냉전과 탈냉전의 남북한 시선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분단의 규정력은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권력과 주민에 대한 시선의 이중성, 그리고 힘 관계에 따른 시선의 위치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시선의 이면에는 통치담론의 생산과 체제 정당화를 위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분석의 틀에 따라 지금까지의 남북한 '시선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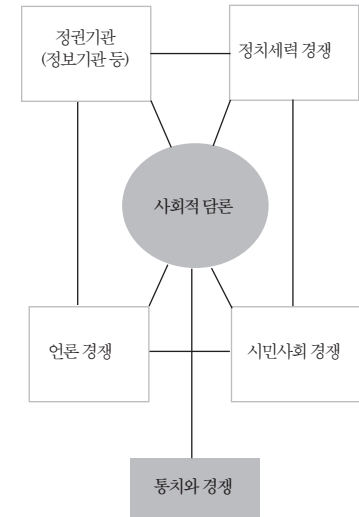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시선의 변화에는 담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그리고 재생산의 구조가 놓여 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탄생하고, 이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은 곧 담론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도 하였다.¹⁶⁾ 남북한이 지식과 과학의 이름으로 담론을 생산-재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북한〉¹⁷⁾



〈남한〉



* 위의 그림은 북한과 남한의 담론 형성 과정을 단순화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로부터 출발한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의 과정을 단순화한 것이고, 남한의 경우는 각각의 사회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형성을 단순화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 수직적인데 비해, 남한의 그것은 경쟁적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16) 이런 점에서 '정보'가 포괄적인 과학지식 -국가지식- 이 된다는 분석은 매우 유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Horn(2003).

17) 조은성, 「김일성과 김정일 '말씀'의 사회통합적 기능: 1990-2000」,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p. 39의 그림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에는 정보를 가진 권력과 일부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수직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⁸⁾ 이러한 경쟁적 구조는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고, 정보의 독점 역시 일부분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문제는 ‘안보’와 연관되어 정권과 일부 언론의 영향력이 담론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담론 형성은 수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정치적 통제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당을 넘어 ‘수령’ 혹은 ‘영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들의 ‘교시’, ‘말씀’ 등이 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⁹⁾

위의 그림에 나타난 담론의 형성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시선’ 이외에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내부의 정치’를 실행하는 데서 남북한이 상이한 모습을 띠는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일원적인 ‘담론-통치’가 가능한 반면, 남한은 ‘북한 담론의 형성’ - ‘내부 갈등’ - ‘정치적 경쟁’ 등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에 와서 ‘북한에 대한 시선’이 곧바로 내부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우월적 시각만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더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남북한은 역사적으로 서로에 대한 ‘시선’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만들어왔고, 이를 내부 정치에 활용하였고, 체제의 정당화와 연결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구조적 동학은 유지되고

18) 이러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경쟁적 구조는 북한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즉, 북한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두 세력이 담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으로 ‘남남갈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 이에 대해서는 조은성(2008)을 참조할 것.

있다. 분단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3. 천당과 지옥

1) 시선의 탄생: 이분법적 세계관의 탄생

분단과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적대감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을 만들어내었다. 시선이 단순한 눈길의 마주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냉혹한 평가라고 한다면,²⁰⁾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바라봄을 통해 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를 울타리 내의 국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시선은 분단의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일명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시선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단지 바라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상대방은 ‘악’이고 나는 ‘선’이며, 상대방은 ‘지옥’이고 나는 ‘천당’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를 확인하고 재생산하게 되었다. 타자에 대한 시선이 〈야만〉 혹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논리에 따르면,²¹⁾ 남북한은 서로를 제국주의적 시선에 따라 바라보고 평가해왔던 것이다.

20) 박정자(2008), p. 37.

21) 최성민, 「제3세계를 향한 제국주의적 시선과 탈식민주의적 시선」, 『현대소설연구』, 제40집(2009), pp. 342-354.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바라봄'은 인위적인 분단선의 확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분단선이 아직 '분단선'으로서 기능하기 이전부터 남북한은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왔다.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이 최우선의 과제였던 해방 정국에서 상대방에 대한 규정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이자, 동시에 상대방을 무력으로라도 소멸시키고 통일의 과업을 성취해야 할 당위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이나 김일성의 '국토완정'에 대한 공개적인 주장으로 이어졌다.²²⁾ 특히 남북 모두에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상대방에 대한 규정과 자기 정당성의 추구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접촉과 대화와 교류도 금지하였다.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사와 그 뒤로 이어진 다음과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일제히 회심개과(悔心改過)해서 우리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²³⁾라는 표현은 북한을 매국노로 규정하는 한편, 죄 지은 자의 회개를 요구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한 우월성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는 김일성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은 "지금 남조선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반동분자들은...제국주의의 쇠사슬에 얽어매려"라고²⁴⁾ 표현하면서, "북조선에서 당의 력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기지를 튼튼히 닦는다면 전조선의 민주화를 실현"²⁵⁾할 수 있다는 주장

22) 해방 정국 당시 이승만과 김일성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서울: 서울대출판부, 2005).

23) 이승만, 「대통령취임사(1948. 7. 24)」,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1월 30일).

24) 김일성, 「북조선민주청년동맹결성에 즈음하여(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에서 한 연설, 1946. 1. 17)」,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18.

25) 김일성,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함경남도당 확대위원회에서 한 연설, 1946. 4. 20)」, 『김일성저작집 2』, p. 178.

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일성 역시 상대방을 '반동분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을 '민주화'의 진영으로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 이전까지 남과 북은 '말대 말'의 공방을 통해 차츰 하나의 담론 질서를 만들어내었고, 이분법적 '바라봄'의 틀을 형성해왔다.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호명'은 나에 대한 '극단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르는 '중간과'는 설 자리가 없었고, 그 입지는 갈수록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²⁶⁾ 여운형과 김구, 김규식의 운명은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과 북에 형성된 구조의 결박 속에서 결정되어 갔던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남북 모두에서 '긍정'이자 곧 '부정'이었다.

초기, 상대방에 대한 규정과 자기 정당화는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보다 더 강조되었다. 좌우가 어지럽게 대립했던 남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정치 질서를 형성해갔던 북한지역에서의 정치 담론과 대중정치교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는 '남조선'은 곧 '반동의 폭압'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곳이었으며, 그를 위해 '북조선'을 발전시키고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1948년을 전후 하여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의 예속의 길로 가는 것으로 집중된다.²⁷⁾ 이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난 한반도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식민지'로 규정하는 것은 곧 자기 정당화의 근거이자 동시에 해방투쟁을 위한 내부 정치의 정당화였다. 또한 상대방의 침입과 침략에 맞서 싸울 수

26) 해방 정국에서 중간과의 역할과 운명에 대해서는 윤민재, 『중도파의 민족주의 운동과 분단국가』(서울: 서울대출판부, 2004).

2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8. 7. 9)」,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66. 여기서 김일성은 '나라의 인공적 분열은 남북 조선이 서로 다른 길로, 즉 북조선은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반면에 남조선은 식민지적 예속의 길로 나아가게'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식민지'의 길인 것이다.

있는 준비를 독려하는 근거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의 발언에서 자주 강조되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전쟁 준비와 간첩, 파괴암해분자의 침투에 대한 대비는 내부의 긴장을 유지시키고, 상대방과의 ‘정의의 전쟁’을 위한 현실적 필요를 일깨우는 것이었다.²⁸⁾ 그리고 이는 곧 통일의 필요성 혹은 지상과제로서 통일의 정당성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김일성은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미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남조선의 해방’에 대한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²⁹⁾ 일종의 ‘구원’을 위한 해방투쟁의 정당화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천당>과 <지옥>으로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였다. 즉,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 사이에 <천당>과 <지옥>같은 차이가 생기게 되면 남조선인민들은 남북 조선의 판이한 현실을 보고 더욱 각성하게 될 것이며”라는³⁰⁾ 표현은 당시 김일성의 남한을 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천당>과 <지옥>, <매국노>와 <애국자> 등의 비유와 시선은 남한에서도 동일하였다. 이승만의 발언에서 공산당은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무리였다. “앞으로 이북공산당의 인도자들과 합석하여 협의한다는 것은 아니해야 할 것이다”는³¹⁾ 표현은 아예 마주할 수 없는 적으로서 북한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반공의 제일선에 선 자부심의 자기 만족

28) 김일성,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경비대문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48. 10. 21)」, 『김일성저작집 4』, p. 466.

29)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하여(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함경남도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3. 10. 20)」,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08.

30) 김일성, 「현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임무와 해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해군군관학교에서 한 연설, 1954. 7. 6)」,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

31) 이승만, 「공산당과 협의 불가, 인권보중에 결사투쟁(1949. 10. 7)」,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1월 30일).

이 가감 없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괴뢰’로 표현하였다. 즉, 상대방을 정당한 상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허구의 꼭두각시’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일부 정치가들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볼 것을 강요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중립적이거나 적어도 ‘괴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기가 1970년대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960년대까지도 이러한 시선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³²⁾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우월성의 확인에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과 ‘정보’가 자리하고 있었다. 로빈슨에 따르면, “적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불균형하게 조합된 과편화된 정보들과 확실하지 않은 가정들로부터 얻어진다. 즉, 그것은 루머이다”라고 진단한다.³³⁾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전쟁을 통해 적에 대한 현존하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³⁴⁾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과 정당성, 그리고 경쟁을 위한 자국민들의 동원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묶어 놓기 위한 도구로서 상대방을 규정하고, 똑같은 시선을 강요한 것은 남이나 북이나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2) 경쟁과 우월성: 발전의 시선

해방 정국을 거치면서 형성된 시선은 남한에서는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반미주의 혹은 ‘남조선 해방’의 이름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남한에서는 반공주의가 모든 것에 앞서 ‘절대적 선’이었고, 북한에서는 ‘반제

32) 남한에서 ‘북괴’의 호칭이 사라지고, ‘북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전후였다.

33) Ron Robinson(2001), p. 4.

34) Robinson(2001), p. 9.

국주의'에 기초한 혁명주의가 전 사회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갔다.³⁵⁾

1960년대에 들어와 남북은 적대적 시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쟁을 통한 우월성의 과시로 이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우위는 곧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 이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은 직접적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발전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주시하였다. 이제는 무력을 통한 대결을 한편으로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누가, 더, 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체제 우월성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선의 전쟁은 발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초기 경제적 자신감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월적인 시선을 갖도록 하였다. 이미 1950년대부터 김일성은 “우리의 살림살이는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남조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여, 발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표현하였다.³⁶⁾ 그리고 이러한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근거로 <천당>과 <지옥>의 비유는 계속되었다.³⁷⁾ 나아가 자신들의 발전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전 한반도의

35)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남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반공담론이 사라지면서 점차 '국가주의 담론'이 애국주의 구성요소로 남는다고 한다. 즉, 적어도 남한에서의 반공주의 담론은 1980년대까지는 지배적이었으며, 남북한의 우월성이 뚜렷해진 1990년대 이후에서야 반공주의 담론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김현선,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 1960-90년대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5권 2호(2002), p. 198.

36)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조선 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54. 12. 23)」, 『김일성저작집 9권』, p. 175.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성과에 기초한 우월성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37) 1956년 김일성은 작가들 앞에서 “공화국북반부는 <천당>이고 남반부는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있게 보여준 작품을 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문학예술부문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56. 12. 25)」,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김일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북반부 인민들뿐만 아니라 전민족의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³⁸⁾ 이는 곧 내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자신들의 발전에 항상 ‘남조선’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 동원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자신들의 앞선 발전상을 통해 주민들의 ‘남조선’에 비한 발전과 생활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체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을 도와주는 것을…신성한 민족적 의무”로 규정할 수 있었다.³⁹⁾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이러한 발언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져간다. 즉, 1970년대 남북의 경제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발전상을 내세우기 어려워졌고, 북한의 경제침체 현상이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다.⁴⁰⁾ 이제는 전반적인 경제 우월성에 기초한 자신감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시책의 우월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즉,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전반적 무상치료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는 식의 제도적 우월성으로 강조점이 바뀌기 시작했다.⁴¹⁾

북한 김일성 발언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우월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구조적인 모순을 앞세우는 우월성으로 강조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르게 남한 대통령의 발언

3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62. 10. 23)」, 『김일성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52.

39) 김일성, 「위성문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1965. 1. 8)」, 『김일성저작집 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5.

40) 북한의 경제상황과 남북한 경제 비교에 대해서는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3).

41) 김일성, 「정무원 사업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재정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 12. 28)」, 『김일성저작집 3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500.

은 점차 공세적인 것으로 변화해갔다. 즉, 1964년만 하더라도, 박정희는 ‘국가 안전보장회의 훈시’에서 “...안으로 정치와 경제의 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난과 실업자 구조 등 사회적 불안의 제 요소를 내포한 채 근대화의 막중한 대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⁴²⁾ 66년에는 “통일조건이 성숙되는 때는 우리의 절실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⁴³⁾ 나아가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절실할수록...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라고⁴⁴⁾ 하여 북한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의 동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드러나는 인식은 북한의 처지를 ‘노예’의 처지에 비유함으로써 여전히 <천당>과 <지옥>의 비유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 구출을 위한 우리의 발전이 보다 더 앞서야 했다. 이는 1960년대까지 아직 경제력으로 충분히 북한을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근대화’의 이름으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내부의 동원에 치중했음을 말하는 것이자,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반공주의를 활용한 경제 발전에 총력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 당시에도 남북한의 제도상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여전하였다. 즉, ‘통일은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광복을 가져다주는 민족적 과업’이며 동시에 ‘전 국토의 민주화’로 규정되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에

42) 박정희, 「국가안전보장회의 훈시(1964)」,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3) 박정희, 「제21회 광복절 경축사(1966. 8. 15)」,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4) 박정희,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제12차 총회 치사(1966. 11. 3)」,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5) 박정희, 「제22회 광복절 경축사(1967. 8. 15)」,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들어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가 되면 제도적인 우월성, 즉 공산독재 체제에 비한 민주제도의 우월성의 주장을 넘어서서,⁴⁶⁾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에 이러한 주장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78년 박정희는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앞지르고 있는 국력 배양의 진군을 더욱 재촉해 나가야만 합니다”라고 하여, 북한에 비한 남한 경제의 우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⁴⁷⁾ 그해 말에는 “이제 우리의 국력은 북한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⁴⁸⁾

결국 1960년대와 70년대는 앞서 형성된 <천당>과 <지옥>의 시선, <매국노>와 <민주화>의 시선, 그리고 이를 응축한 이데올로기적 시선에 바탕하여,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의 경쟁을 중심에 두는 상대방에 대한 규정과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경쟁과 우월성의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내었다. 이제 ‘천사와 악마’의 위에 ‘잘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의 시선이 겹쳐지게 된 것이었다. 남북한의 경우, 정보의 독점에 따른 확실치 않은 소문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실, 이처럼 적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뿌리 깊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⁹⁾ 결국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 남북한이 안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과 우리’의 이분법적 시선은 고착화되었고,

46) 박정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1971. 12. 6)」,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7) 박정희, 「1978년 신년사(1978. 1. 1)」,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8) 박정희, 「제9대 대통령 취임사(1978. 12. 27)」,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49) Robinson(2001), p. 7.

마침내 이러한 시선이 사회적인 문화로 기능하게 되었다.⁵⁰⁾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의 경제력은 그 격차가 크지도 않았고, 여전히 경제력에 의한 압도적 우위를 내세우기는 어려웠다. 전 세계의 냉전 체제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력에 대한 비교 못지않게,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제도의 우월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우월성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발전의 시선'으로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 적대감과 대립은 내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히 활용되었다. 여기서 남북한이 모두 드러내놓은 공통성은 이러한 총동원을 통한 발전이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남북 모두 경제 발전은 통일을 위한 '민족'적 과업이었던 것이다.

4. 엇갈린 시선

1) 공세와 방어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자신감 있는 공세는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제적 우위가 약화된 반면, 남한의 경제적 성장은 최소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50)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변형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신아세아』, 제18권 2호(2011).

〈표 1〉 남북한 경제성장 비교

연도	북한						한국		
	NK(백만 won)	GNP(백만)US\$		1인당 GNP US\$		성장률 (%)	GNP (백만) US\$	1인당 GNP US\$	성장률 (%)
		공식 환율	무역 환율	공식 환율	무역 환율				
1946	511.9	426.6	232.7	46	25	-	na	na	na
1949	1121	934.2	509.5	97	53	-	na	na	na
1953	855.4	712.8	388.8	84	46	-	1353	67	-
1956	1610.4	1499.5	732	160	78	31.8	1450	66	-1.4
1960	4209.7	3508	1913.5	325	177	7.4	1948	79	1.1
1961	4763.4	3969.5	2165.2	357	195	13.1	2103	82	5.6
1962	5290.9	4409.1	2404.9	386	211	11	2315	87	2.2
1963	5790.3	4825.3	2632	411	225	9.4	2718	100	9.1
1964	6369.3	5307.8	2895.1	440	240	9.9	2876	103	9.6
1965	6603.2	5502.6	3001.5	454	248	3.6	3006	105	5.8
1966	6986	5821.7	3175.5	468	255	5.8	3671	125	12.7
1967	7391.2	6159.3	2876	482	225	5.8	4274	142	6.6
1968	7819.9	6516.6	3042.8	496	232	5.8	5226	169	11.3
1969	8263.4	6894.6	3219.2	510	239	5.8	6625	210	13.8
1970	10838.2	9031.8	4217.2	650	304	31	8105	252	7.6
1971	12572.3	11326.4	5327.2	794	374	15.9	9456	288	9.1
1972	14583.9	13201.6	6179.6	901	422	16	10632	318	5.3
1973	17354.8	15634.9	6353.7	1040	489	18.9	13446	395	14
1974	20339.8	21187.3	8618.6	1374	559	17.1	18701	540	8.5
1975	24407.9	25424.9	11906.3	1603	751	20	20795	590	6.8
1976	27092.7	28221.5	12601.3	1735	775	10.9	28550	797	13.4
1977	26009	27092.7	12097.2	1624	725	-4	36629	1008	10.7
1978	30430.5	32720.9	16360.5	1912	956	16.9	51341	1392	11
1979	34995	41660.8	19550.3	2374	1114	14.9	61361	1640	7
1980	35590	41383.7	20935.3	2295	1161	1.7	60327	1589	-4.8
1981	36479.7	39651.8	20610	2147	1116	2.5	66238	1734	5.9
1982	40930.2	42196.1	19306.7	2229	1020	12.2	71300	1824	7.2
1983	45923.7	45023.3	21065.9	2346	1042	12.2	79500	2002	12.6
1984	47163.7	39303	19984.6	2002	1018	2.7	87000	2158	9.3
1985	48437.1	45268.3	19933	2220	978	2.7	89695	2194	7
1986	49454.3	48484.6	22176.8	2324	1063	2.1	102789	2505	12.9
1987	51086.3	54347.1	23872.1	2544	1117	3.3	128921	3110	13
1988	52618.8	55977.5	25056.6	2558	1145	3	172776	4127	12.4
1989	54197.4	55873.6	25808.3	2481	1146	3	211200	4994	6.8
1990	55443.9	57158.6	26401.8	2233	1031	2.3	237900	5569	9

출처: 황익기,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3)에서 남북한 통계표를 종합하여 작성

결국 이때부터 북한은 남한 경제와의 물질적·총량적 비교에서 벗어나 남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다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남한 경제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남한의 종속적 구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일명 김일성이 말하는 '갓끈론'이었다. 김일성은 "남조선괴뢰도당을 유지하는 데서 미제국주의자들이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른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남한이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종속된 처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⁵¹⁾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우위 혹은 우월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를 허수아비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제도의 우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역전 현상과 남한 군사력의 성장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충분한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제는 남한에 의한 <북침위협>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표현으로는 "지금 우리에게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있습니다"⁵²⁾ 였고,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⁵³⁾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 1950년대 미국과 남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가졌던 자신감은 어느덧 방어적인 논리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남한에 비해 결코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우리가 남조선보다 더 강대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사

51)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5. 2. 17)」, 『김일성저작집 3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4.

52) 김일성,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과 한 담화(1975. 8. 31)」, 『김일성저작집 30』, p. 441.

53) 김일성, 「세계직업련맹대표단과 한 담화(1980. 3. 2)」,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3.

상적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⁵⁴⁾ 하여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에 있음을 고수하고 있었다. "남조선 경제는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예속경제입니다"는 식의 발언은 남한의 경제성장과는 별도로 그 구조에서의 취약성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⁵⁾ 이러한 김일성의 인식은 "남조선 경제는 예속적인 수출주도형경제이고 그 명맥은 큰 나라들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면 하루아침에 질식되고 맙니다"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남한 경제의 실업과 빈곤 등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옥>으로 묘사되어 온 '남조선'의 현실보다는 남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과거

54) 김일성, 「조선 파쓰통신사대표단과 한 담화(1984. 3. 31)」, 『김일성저작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86. 물론, 이 발언은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김일성의 강조는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북한은 그에 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5) 김일성, 「아일랜드로동당 총비서와 한 담화(1988. 7. 26)」, 『김일성저작집 4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06.

56) 김일성, 「재일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 운동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재미교포들과 한 담화, 1993. 3. 11)」,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31.

57) 과거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순이 가난과 실업자, 여성들의 수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대표적이다. "서울에서는 녀자들이 속에 헌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얼굴에는 연지를 시뻘겋게 바르고 다니는데 여기 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조선녀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고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녀자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기의 몸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청년들이 미제의 대포망으로 남부월남전쟁터에 끌려가는 것도 남조선에 있으면 굶어죽겠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돈에 팔려 간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남조선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것은 행복한 우리 북반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입니다."(김일성,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데 대하여(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 6. 14)」,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79). 즉,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한'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표현은 점차 사라져 갔다. 가난과 실업 등의 비참한 처지는 그의 발언에서 사라지고, 제도의 우월성, 즉 무상치료제나 무료의무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의 공세적인 대남 인식과 그에 따른 시선에서의 후퇴였다. 더 이상 <천당>과 <지옥>도 거론되지 않았고, 또한 '남조선 혁명'과 '통일'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도 강조하지 않았다.⁵⁸⁾ 1980년대에 들어와 오히려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한 평화였으며, 전쟁의 공포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었다. 여전히 '냉전의 시선'에 갇혀 있었지만, 공세와 방어가 뒤바뀐 시선이었다.

반면, 남한은 점차 공세적으로 나아갔다. 박정희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은 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국력의 우위를 위해 겪어온 지난 기간을 평가하면서 공세적인 대화마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남침위협'을 통한 국가 안정은 변함없는 통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박정희의 죽음 이후, 사회혼란에 대한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는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⁵⁹⁾ 언급은 여전히 전쟁의 경험과 반공주의에 기댄 통치의 수단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직 냉전이 해체되지 않은 상황, 여전히 군부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공주의의 해체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반공이 발전과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작동해왔던 조건에서 국력의 우위가 반공주의의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력의 우위를 통한 더 강한 반공주의와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은 북한에 대한 제도적 우월성의 분명한 반영이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와 경제적 우월성은

58) 이는 과거 사회주의 건설이 곧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적 토대로 주장되었으나, 이제 사회주의 발전은 그 자체로 강조되었다.

59) 최규하, 「시국에 관한 대통령 권한대행 특별담화(1979. 11. 10)」,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보다 더 분명해졌다. 소위 '3저 호황'에 따른 남한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은 북한과 비교하여 경제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결국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바뀌었다. 공세적이었던 북한의 자신감 있는 시선은 점차 방어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반면 남한은 점차 공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80년대 탈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의 서로에 대한 시선은 '냉전의 시선'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적인 격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공고성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방어적인 담론이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남한은 경제적 자신감에 기반하여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시작했음에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탈냉전이 도래하던 1980년대 말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 두려움, 동정 그리고 시혜

1980년대 중반부터의 남북 관계는 '시선의 역전'이 확연히 드러난 시기였다. 소련 및 동유럽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등으로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고립감이 깊어 갔다. 냉전의 해체는 더 이상 냉전에 기반 한 '시선의 정치'를 앞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남한에서의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공세적인 북방정책 등은 북한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 과거의 공세적인 시선은 '위기와 공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남한에서 노태우 정권은 이러한 주변 정세와 더불어 공세적인 대북 제안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노태우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극

명하게 보여준다. 노태우는 1989년 신년사에서 “동포애에 바탕한 우리의 전향적인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정책은 개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세계적 물결 속에서 폐쇄적인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⁶⁰⁾라고 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공산주의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⁶¹⁾ 이러한 시선은 탈냉전의 유리한 국제정세, 남북한 국력의 격차 등에 기반한 자신감이었다. 즉, 이제는 두려움에서 점차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북한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위 ‘승리자의 시선’으로서의 태도인 것이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구의 붕괴는 새로운 사상교양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무너진 사회주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양이 강조되어야 했다. 김정일은 “사료청조직들은 청년들에게 남조선 사회를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성,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 청년들의 불행과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비교양을 잘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있게 체득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여,⁶²⁾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북한식 답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에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예측성과 기형성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여,⁶³⁾ 남한과 대비한 경제구조적인 우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미 경제적 차이가 심화된 조건에서, 북한으로서는 그 크기가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했던 것이다. 과거 ‘남한’에 대한 선전으로 사용했던 실업자와 빈부의 격차 등의 문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여전히 남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종속성— 을 지적하는 한편, 문화적 오염과 같은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에서의 종속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력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자, 동시에 탈냉전의 시기에 닥친 위기에의 대응이었다. 또한 1990년대에 닥친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내부의 문제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결과 북한은 <두 개의 한국>을 의미하는 유엔 동시가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한 ‘특수한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⁶⁴⁾ 이에 반해, 남한은 김대중 정부 들어 대북 3원칙⁶⁵⁾을 제시하고, 남북 협력이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밀고나갔다. 겉으로 보기에, 남북 관계는 이제 ‘적대적 관계’라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이며, 동시에 동정과 시혜의 관계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이만큼 긴장이 완화되고, 월드컵을 안심하고 치른 것도 북한에게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준 대가인 것입니다”⁶⁶⁾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60) 노태우, 「1989년 신년사(1989. 1. 1)」,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61) 노태우, 「한국전쟁기념사업회 창립 축하 만찬 연설(1989. 2. 3)」,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62) 김정일,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청년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 1. 5)」,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04.

63)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 4. 22)」,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67.

64)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65) 대북 3원칙이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부정, 화해협력의 추진 등을 말한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사(1998. 2. 25)」,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66) 김대중, 「2003년 신년인사회 말씀(2003. 1. 2)」,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이, 북한에게 ‘약간의 대가’를 주고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얻어낸 것이라는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와 안보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더 명확히 했다. 노무현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라고 하여⁶⁷⁾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물론, 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위적 통일’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냉전적 대립’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은 ‘냉전적 시선’에 더하여 우월한 국력을 앞세운 ‘북한 굴복’을 요구한 정책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남북 관계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 대결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남북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시기 남북 관계는 과거 북한이 그러했던 역할을 남한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과거 1950~60년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적극적인 경제 교류와 사회문화 협력은 남한의 공세적인 무기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점차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발생했다면, 남한에서는 이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과거의 반공주의에 기반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반공주의의 시선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가운데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경향은 강화되었다.⁶⁸⁾ 그리고 이러한

67) 노무현, 「2007년 신년연설(2007. 1. 23)」,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 검색일 12월 1일).

68) 네그리는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가 강조되는 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타자나 ‘타국’은 시비의 대상이거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최성민(2009), p. 354. 또한 ‘교련’교과서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반공사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의 반공사상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반공표어가 여전히 1990년대 사회에서도 발행 유포되고 있다, 김현선(2002), p. 199.

‘동정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여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북 관계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냉전의 시선’이 소멸되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애는 해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전과 탈냉전의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괴뢰’와 ‘역도’의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빼라 살포’가 심리전의 이름으로 재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가 여전히 냉전의 적대적 대립 관계에 뿌리 깊이 박혀있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시선의 정치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냉전’과 그에 기초한 ‘냉전의 시선’에 깊이 갇혀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남북 관계의 변화와 시선의 변천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출범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냉전의 벽을 허무는 금강산관광은 남북 관계가 과거의 냉전시대를 지나, 이제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개발 그리고 남북한 왕래 연인원 10만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⁶⁹⁾ 이러한 활발한 남북 교류와 협

69) 남북한 왕래 인원은 2008년 18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역시 10만 명 이상이 남북한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개성공단 출입국 인원이다.

력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드디어 한반도에서도 냉전이 해제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갈등'과 남한 내부에서의 격렬한 '남남갈등'은 남북 관계의 미래가 아직은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 냉전의 언사들이 재등장한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개선 전망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한반도의 상황이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게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안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슈미트(Shumidt)가 말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결정과 행위'로서 '정치적인 것'을 규정한다면,⁷⁰⁾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서로를 '적'으로서 명확히 해왔지만, 점차 '적'으로서만 북한이 규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북한 역시 남한을 '적'으로서만 규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적과 우리'라는 전형적인 냉전 논리가 일정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적과 우리'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시선에서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선이 단순히 '바라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냉혹한 평가의 문제라고 할 때,⁷¹⁾ 남북은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시에 평가하고, 그에 기반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바라봄'과 '바라보여짐'은 경계이자 동시에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사회역사적인 변천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남북한 시선의 변천에는 국가 지식(state knowledge)이 자리하고 있다. 남북한의 상황에서 국가 지식은 단순한 정보

70) 장준호, 「국제정치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에 대한 소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2005), p. 8.

71) 박정자(2008), p. 37.

를 넘어서 '과학'이 되었다. 사실, 정보는 '적'을 말해주지만 '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지식의 내면에는 자기최면효과가 존재한다. 즉, 진짜 적, 강력한 영리한 적, 나를 속이는 강력한 적이라는 최면효과⁷²⁾는 적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정보기관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보여주었던 '냉전의 시선' 속에는 이러한 전쟁 메커니즘적인 속성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남북의 전쟁 메커니즘의 열정에는 정보와 기술적 사고의 조화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행스럽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시선의 역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 그리고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가 놓여 있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 남북 관계는 결국 남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정치'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적대적 시선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의 시선에서 두려움과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의 시선으로 변화했고, 남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려움과 공포의 시선에서 자신감과 우월성의 시선으로 변화했다. 시선이 결국 사회역사적인 반영이라면, 남북 관계의 변천은 곧 시선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남북의 국력의 차이,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서로에 대한 바라봄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변천은 필연적으로 '승리자의 시선'과 '패배자의 시선'이 겹쳐질 수밖에 없었다.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책임공동체'로서의 남북의 자기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승패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서 남북한의 시선에 가장 큰

72) Hom(2003), pp. 61-67.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힘’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문제는 결국 남북 상호 간의 체제 경쟁과 우월성의 표현이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규정되었다.

남북한의 시선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통일과 민족’에 대한 정당성이었다. 즉, 통일을 위한 정당성이자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규정 역시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민족적 시각 위에 체제의 문제가 겹쳐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체제가 민족적 정통성을 보다 더 잘 구현하고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민족과 통일을 둘러싼 우위의 확인이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주장이나 남한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주장은 냉전 문화 속에서도 ‘민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시아에서의 냉전이 미국화(Americanization)와 소련화(Sovietization)의 단선적 대립과 각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시아 내셔널리즘이라는 바탕 위에서 그 각기의 사상문화적 변주를 통해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구현해왔다는 지적을 돌이켜보면,⁷³⁾ 남북한은 냉전의 배경 위에 ‘민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73)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의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 1』(서울: 현실문화, 2008), p. 55.

The North-South Relation and the Politics of Gaze: The Politics of Gaze and Legitimacy of the Competition

Chung, YoungChul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After national division, North and South Korea each created 'its way of looking' at the other party. This wa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elf-identity that defines oneself and one's opponent as 'good' and 'evil.'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forced this perspective on their respective residents. This 'politics of gaze' meant the birth of a dichotomous view of the world and made the 'social discourse' supporting its perspective firm. In this manner, the ideologies of North and South Korea, represented as 'anti-imperialism' and 'anti-communism' during the Cold War era, reflect the ceaseless interdependency of each state's self-identification.

The gaze of North and South Korea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flow of history. That is, the gaze over one's opposite changed with the changes in inter-Korean power relations. Since the 1990s, the South Korean gaze of 'sympathy and dispensation' over the North has overlapped with the gaze of 'salvation and emancipation.' South Korean movements for helping North Korea today lies on such gazes of 'sympathy and dispensation.'

Meanwhile, the 'politics of gaze' in North and South Korea lie in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surrounding the nation(minjok) and its politico-economic system. This is because the two Koreas have embodied the national legitimacy and superiority of their own system in their respective points of view. Without the resolution of fundamental matters regarding national division, the competition of gaz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not easily be resolved.

•Key words

politics of gaze, forced perspective, social discourse, anti-communism, anti-imperialism